

- 1.종교다원주의 배격
- 1.동성애 반대
- 1.차별금지법 반대
-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226호
6월 24일
2023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부흥과 선교’ 재교육, 재충전 시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연수 및 세미나 개최

개회예배 설교



김병목 목사
예하성 총회장

부흥회 설교



신재영 목사
직선총회장

특 강



배진기 목사
전임총회장

특 강



김인안 목사
전임총회장

부흥회 설교



임용재 목사
전임총회장

특 강



이억주 목사
한국교회연회 대표

특 강



이명화 목사
오소송 명심교회

폐회예배 설교



김영준 목사
부총회장



김기진 목사
예하성 부흥사회장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회장 김기진 목사)는 지난 6월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2박 3일간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에서 연수 및 세미나를 갖고 진리를 왜곡하여 영혼을 미혹해 사망으로 이끄는 이단 사이비가 장광하는 때 교단의 정체성인 종교다원주의 배격, 동성애 및 차별 금지법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여 달음질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세미나에 참여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부흥사로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재교육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첫날 오후 2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일정을 진행한 이번 대회는 부흥사회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 부회장 최정진 목사의 기도,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말씀증거가 있었다.

김목사는 사 60:1-3 말씀을 본문으로 ‘부흥사들이여 일어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흥사들이 될 것”을 강조하고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을 염려하지만 말고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목사는 이어 “광범위한지역에 복음을 전할 사명과 이를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성령의 권능을 함입어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되 구속신앙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하며 종교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이단 사설을 배격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를 강조했다.

계속된 강연은 특강1 부흥사회장 김기진 목사의 ‘부흥사의 설교 방향’, 특강2 전임총회장 김인안 목사의 ‘부흥사의 자질’ 강연이 있었으며 저녁식사 후 첫 날 부흥회가 서기 임용준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김병목 목사의 기도, 전임총회장 임용재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이후 기도회로 첫날 일정을 마치고 둘째 날 일정으로 특강34 전임 총회장 배진기 목사의 ‘교단의 정체성’, ‘교단의 역사’ 특강5 한국기독교연회 대표 이억주 목사의 ‘한국기독교사’ 오소송명심교회 이명화 목사의 ‘부흥사의 성품’ 둘째날 저녁 부흥회는 상임부총무 조은혜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김연수 목사의 기도, 직전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설교로 부흥회가 이어졌다. 이어 둘째 날 기도회로 뜨겁게 기도한 후 둘째날 일정을 모두 마쳤다.

셋째 날 오전 폐회예배는 상임위원장 백영자 목사의 사회로 부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설교 말씀 증거로 모

든 일정을 마무리 했다. 연수 및 세미나순서 중간 중간에는 설기찬 목사가 찬양을 인도했으며, 매일 심야 기도회는 우광덕 목사와 이형은 목사가 인도했다.

회장 김기진 목사는 부흥사 상호 간에 활발한 교류를 통한 교회부흥을 위해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예하성 부흥사회는 자유주의 및 사이비부흥운동과 불건전한 부흥운동을 배격하는 성경적부흥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국내외 교회와 기도원의 부흥회를 개최하며 미자립교회의 자비랑부흥회를 적극 후원한다.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년 1회 부흥사지정개별과 친목을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또한 예하성 부흥사회에서는 뜨거운 사랑강 속에 피함으로 복음의 말씀을 외치며 이 땅의 구속사역과 한국교회의 부흥, 교단의 부흥,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해 커다란 역할을 할 사명자와 부흥사 신임회원 및 준 회원들을 모집한다. 아울러 교단신하 모든 교회들의 주간 부흥회와 도시 개척교회 및 미자립교회 자비랑부흥회(부흥사회 지원) 신청도 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순수함과 열정이 있는 기쁨사단 부흥회를 통해서 생기는 교회에 성도들의 심령부흥과 교회성장을 위한 헌신을 다짐했다.

문의: 회장 김기진 목사 010-4112-9313
총무 오세준 목사 010-5041-3411



‘금주금연(禁酒禁煙)은 성도의 표지(標識)입니다’



조용목 목사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한삼서2절)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 중에 기름과 술의 폐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배까지 덧붙여 그 피해와 해로움에 대하여 현대 의학이 밝힌 사실을 인용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짐승의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레 3:17, 7:22~24)

짐승의 기름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현대 의학이 밝히고 있습니다. 혈관에 동물성 지방이 들어가면 혈관 벽에 붙어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원활히 순환되지 못하게 됩니다. 동물성 지방으로 인하여 심장에 분포된 관상동맥의 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성이 상실되면 심장근육에 혈액 공급이 잘 안되어 심장마비가 일어납니다. 또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되어 쉽게 병들고 회복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근육에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협심증이 생깁니다. 심근경색이 되면 심장 근육으로 혈액공급이 전혀 되지 아니하여 심장근육의 일부가 괴사됩니다. 지방으로 인하여 뇌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게 되어 뇌혈류가 감소됨으로 뇌 조직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뇌경색은 고혈압의 사망 원인 가운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동물의 기름을 섭취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6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르지 마라”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 모든 기름은 여호와께의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건강에 유익한 것은 그의 백성들에게 먹게 하고, 해로운 것은 자신의 것이라고 하여 사람들이 먹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상함을 느끼게 하여줍니다.

둘째로, 건강하게 살려면 술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의 폐해는 가족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막대한 고통과 손실을 미치게 합니다. 술을 마시면 판단력과 주의력, 자제력이 약화 또는 마비되어 음주운전, 폭력사건 등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와 교통사고율에 관한 실험결과를 보면, 농도 0.15% 이상의 민첩 상태에서는 사고 발생률이 38%나 높습니다. 대검찰청에 의하면 성폭력 가해자의 약 50%

가 범죄 직전 과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코올은 두뇌의 일정 부분에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술 마시는 사람들의 다수가 조금씩 자살을 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간암 등 간 질환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특히 20~50대 남자 사망 원인 1위가 술로 인한 간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 사람만큼 술을 많이 먹는 민족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옛날 한국 땅에 밭을 딪던 선교사들이 대만에도 술을 먹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금주를 제도와 하였습니다. 집안 23장 29절에 금주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술로 인한 건강 손상과 폐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술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셋째로, 건강하게 살려면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위험이 13배 정도 높고, 하루 2갑씩 20년간 담배를 피울 경우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폐암으로 죽을 확률이 60~70배 증가합니다. 흡연은 첫째 폐암, 후두암, 식도암, 위궤양과 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둘째 폐렴, 유방성갑기, 심아지장폐양, 대동맥 확장, 방광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셋째 관상동맥 질환, 간 경변, 기타 암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넷째 뇌도관 장애와 뇌졸중에도 다소 관련이 있습니다. 흡연에 의하여 생기는 혼하고 무서운 또 하나의 질병은 폐기종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아직 담배가 사용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경고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고전 6:19, 10:31)

성경은 의학책이나 과학 서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사물의 진상을 오관으로 인식할 수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수많은 질병과 때 이른 죽음에서 벗어나고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해 놓으셨습니다. 금주금연은 성도의 표지입니다. 표지란 다른 것과 구별하여 알게 하는 특징을 의미합니다. (은혜와진리교회)



교단 제72차 총회 제2회 임원회

저출산 극복, 북한 핵저지 위해 기도

좌편향 교과서 바로잡아 바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법’ 지지



김병목 목사
예하성 총회장

교단 총회(총회장 김병목 목사) 제72차 총회 제2회 임원회가 지난 6월 15일(목) 오전 11시 학원순복음교회(담임 정진균 목사) 회의실에서 열려 각종 보고와 회부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정진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임형순 목사의 기도, 교단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목사는 롬 12:2 말씀을 본문으로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 세대를 향해 과감

히 ‘No’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도록 해야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과 그 분이 마음에 부어 주신 열정을 따르자.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김병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서기 임형순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개회선언, 총무보고 사항으로 이어졌다.

총무 정진균 목사는 총무보고를 통해 미국 미네소타주 크리스천 센터에서 열린 세계하나님의성회 선교위원회(WAGMC) 선교지로서 회의 참석(선교위원장 심용재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에서 열

린 부흥사회 연수 및 세미나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결의 및 안건토의 각종 청원 사항으로 교역자가 임 청원,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진출임 청원, 교역자 은퇴/원로 보고, 교회폐쇄 청원 등이 결의되었다.

기타사항으로 전국교역자국 하계세미나가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대림번영교회 평장수양관에서 개최됨과 제72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가 오는 7월 6일(목) 은혜와진리교회 인양성전에서 개최됨을 보고했다.

임원들은 김영병 공식 종료 선언 후 아직도 적지 않게 감염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잘 점검하고 교회의 대처방안도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원들은 합심기도를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동성간 결합 법적 가족 인정 및 법적 혜택 반대, ‘생활동반자법’ 제정저지, 또한 말씀예곡으로 영혼을 수렁으로 빠뜨리는 사이비집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북한의 핵무장 야욕을 봉쇄하기 위해 한미,

한미일 공조의 폭을 확대하여 국가안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특히 미래세대의 바른 교육을 위해 좌편향 교과서를 바로잡는 일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 한시라도 빨리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유관 기관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북구 기독교교단협의회 제18회 정기총회 개최

대표회장 최정식 목사 선임, 북구지역 630개 교회연합 사랑실천



최정식 목사
예하성 광주신학교 학장
광주지방회 전임회장

광주광역시북구 기독교교단협의회 제18회 정기총회가 지난 6월 9일(금) 오전 11시 광주 북구 분흥동 분흥제일교회(맹연환 목사 시무)에서 열려 18대 대표회장으로 순복음복원교회 최정식 목사(예하성 광주신학교 학장, 광주지방회 전임회장)를 선임하는 한편 북구지역 630개 교회 연합체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의 지경을 넓히고, 아름다운 북구 건설과 화합하고 따뜻한 북구를 만들어 가는 데 교단을 초월하여 앞장 서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부회장 강신유 목사(광주주원교회)의 사회로 구현철 목사(큰사랑교회)의 기도, 서기 최석일 목사(온누리교회)의 성경봉독, 대표회장 신은수 목사(광주열린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신 목사는 삼하 7:5-9 말씀을 본문으로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한다. 그러므로 신앙의 생각, 믿음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갖고 행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시므로 우리 모두 좋은 생각을 갖고 광주북구 교단연합을 위해 섬김으로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서 특별기도로 ‘복음통일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 ‘차별금지법 반대와 출산장려를 위해’, ‘복교협과 북구청을 위해’ 최재련 목사(해미교회), 왕상엽 목사(순복음호남신학교 이사장), 서영식 목사(성신교회)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직전회장 김형수 목사(광주나들목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2부 정기총회가 대표회장 신은수 목사의 인도로 개최되어 회원점명, 개회선언, 서기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행사 및 사업보고가 있었으며 전임 대표회장단의 추천에 의해 새로운 대표

회장에 순복음복원교회 최정식 목사(광주신학교 학장, 예하성 광주지방회 전임회장)가 선임되었다.

제18대 대표회장에 선임된 최정식 목사는 “광주광역시북구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이라는 중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다. 존경하는 복교협 상임고문 목사님들과 여러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복교협 630개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처럼 좋은 날에 북구교단협의회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다”고 전했다.

이어 “복교협 회장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에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기도하면서 선배 목사님들께서 이루어놓으신 소중한 업적들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요즘 어렵고 힘들다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지만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성경 말씀 속에 다 있는 만큼 교회와 목회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교단과 교파 교회의 규모를 넘어 우리 모두가 소통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는다”고 말한 뒤 “우리 북구청과 북구 630개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충만으로 무장하여 교회마다 가정마다 신바람이 일어나고 예배의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로 부흥과 성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회장 최정식 목사는 직전회장 신은수 목사에게 공로패를 증정했으며 신안건은 신임 대표회장에게 위임하고 정기총회를 마쳤다.

3부 축하 순서는 전임 대표회장 홍용희 목사의 사회로 상임고문 진총섭 목사와 맹연환

목사, 전임회장 김성원 목사의 격려사, 광고협 대표회장 정태영 목사와 전임회장 김희옥 목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북구청장 문인 구형장(광주동명교회 안수집사)은 인사말을 통해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마음을 열고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말했다.

사무총장 장성길 목사의 광고 후 전임회장 공동영 목사의 마침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광주광역시북구 기독교교단협의회는 18 회기를 지내 오는 동안 북구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지속적으로 1004호 운동

을 전개하며 쌀을 나누어 주고 있으며 이밖에도 힘이 되는 대로 교회가 지역민들에게 따뜻한 사랑나눔의 본을 보이므로 북구청과도 오랫동안 돈독한 유대관계 속에 서로 협력하며 모범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광주광역시북구기독교교단협의회 제18회 주요 임원진

- ▶ 상임고문: 진총섭 목사, 임종준 목사, 맹연환 목사
- ▶ 직전회장: 신은수 목사(열린교회)
- ▶ 대표회장: 최정식 목사(순복음복원교회)

월례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허만운 목사)는 지난 6월 12일(월) 울진군 후포면 후포3길에 위치한 순복음성산교회(담임 허만운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해 한마음 되어 기도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항구 목사(주찬양교회)의 사회로 시작, 부회장 윤철희 목사(행복한순복음교회)의 기도, 지방회장 허만운 목사(순복음성산교회)의

설교순으로 이어졌다. 허 목사는 고후 3:2-3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함께 있어서 늘 살아있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함”을 설교했다.

설교 후 성여호수아 목사(시온순복음교회)의 헌금을 위한 기도, 직전지방회장 도사현 목사(동해안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곧바로 이어진 2부 순서로 열린 월례회는 지방회장 허만운 목사 주재로 각종 현안과 회무를 처리하고 인근 후포항에서 맛있는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즐겁게 교제를 나누었다.

회원들은 주변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후 아쉬운 인사를 뒤로하고 각자의 사역지로 향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은혜로운 목회

강원지방회

강원지방회(회장 엄기소 목사)는 지난 6월 15일(목) 영월 열린교회(유홍열 목사)에서 지방회 월례회를 갖고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주신사명을 잘 감당하는 회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월례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성백달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전임 지방회장 유홍열 목사의 기도, 지방회장 엄기소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엄 목사는 로마서 8:5-8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초점’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자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행동으로 바른 목회를 하기 원하고 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주



신 초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므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목회자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므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목회의 초점을 맞추어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성지교회 진장길 목사의 헌금기도,

전임 지방회장 박순용 목사의 나라와 경제 안정과 지도자를 위한 기도, 전임 총회장 이창제 목사의 헌금 축복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이어진 월례회는 지방회장 엄기소 목사의 인도로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은혜 가운데 모든 순서를 마쳤다.

회원들은 월례회를 마치고 영월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예하성 스포츠선교회 탁구동우회 첫모임

탁구동우회 첫모임 예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스포츠선교회 탁구동우회가 첫모임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탁구동우회는 지난 6월



15일(목) 오전 11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서로에 위치한 은혜와찬양교회(담임 엄기설 목사)에서 첫모임 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예배는 기호선 목사의 사회로 육보에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엄기설 목사의 약 5:7-11 말씀을 본문으로

한 ‘길이 참으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2부 기도회는 ‘교단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신령설 목사, ‘복음통일과 세계선교를 위하여’ 이만석 목사가 각각 기도를 인도하고, 사회자의 광고와 엄기설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어 탁구동우회 회원들은 은혜와찬양교회(담임 엄기설 목사)에서 준비한 식사를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앞으로 활동을 위한 회의를 했다.

교단신하 스포츠선교회 탁구동우회는 건강한 생활체육 탁구를 통해 건강증진과 함께 복음전파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고자 회원들을 모집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증평생명교회 양근모 목사 임직예배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이문근 목사)는 지난 6월 10일(토) 오전 11시 제22차 목사 임직예배(임직자 양근모 전도사)를 증평 생명교회



(담임 교역자 양근모)에서 드렸다.

1부 임직예배는 지방회 총무 오병용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지방회 회계 김윤배 목사의 대표기도, 서기 정재광 목사의 성경봉독 후에 요2:15-17 말씀을 본문으로 ‘내 양을 먹이라’는 제목하에 지방회 전임회장 김윤용

목사(증평순복음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주님의 양을 맡기셨는데, 주의 종들은 아끼며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필레오적인 우정의 사랑을 견뎌내 주님이 맡겨주신 목양사명을 잘 감당하려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목사 임직식은 지방회장 이문근 목사의 인도로 양근모 전도사의 목사 임직식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고, 3부 축하 시간에는 증평순복음교회 성도들의 축하, 전임지방회장 신병설 목사와 조재호 목사의 축사, 지방회 부회장 김경준 목사의 권면, 전임지방회장 김용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식담으로 이동해 애찬을 나누었다.

삼봉해수욕장서 야유회 갖고 회원들 간의 단합

충서지방회

충서지방회(회장 이인복 목사)는 지난 6월 17일(토) 11시 태안군 안면읍에 소재한 삼봉해수욕장 야외무대에서 야유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정찬덕 목사(엘사랑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직전지방회장 김영권 목사(순복음은혜교회)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에 이어 전임총회장 진동용 목사(은양은혜와진리교회)가 삼삼 7:12-14 말씀을 본문으로 ‘에베에셀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진 목사는 “우리는 팬데믹 시대를 지나오면서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 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심을 믿고, 먼저 우리는 승리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짐으로 우리 자신이 회복의 은혜를 생각하고 신앙의 정체성 회복을 이루는 목회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합심 기도도 목회자의 건강과 각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지방회장 이인복 목

사(송죽교회)의 인사말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삼봉해수욕장 일원 율리길을 걷고 장소를 옮겨 점심식사 후 작은 섬을 정원 카페로 이모임에 꾸민 곳으로 이동, 꽃과 차와환담으로 심신을 할링하는 시간을 갖고 전임총회장 진동용 목사의 마무리 기도 후 모든 일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다.

생명의 말씀과 함께 자장면 배식하며 기도

군선교위원회, 3군단 특공연대 방문 위로 격려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는 지난 6월 16일(금)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와 군선교국장 정석현 목사를 비롯 안보 지킴이 봉사단 회원들과 함께 무더운 날씨에도 동부전선 국도방위를 위해 산악지역에서 훈련과 경계근무에 여념이 없는 3군단 특공연대를 방문하고 위로 격려했다.

부대장 권용준 중령은 어려운 가운데도

부대를 방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부대에서 먹기 힘든 엄마표 자장면을 준비해 직접 사랑으로 조리해 주시고 장병들에게 배식해 주심에 깊은 사랑을 느껴, 더욱더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부대 장병들을 위해 납마다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당부했다. 부대장이 오기

전까지 신앙생활하는 용사들이 거의 없었지만 부대장이 새로 부임한 뒤 20여 명의 용사들이 신앙생활한다고 하여 그 자신이 기도와 전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했다.

군선교국장 정석현 목사는 21시간 수색대에 복무한 경험을 살려 장병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함께 군 생활을 새로운 삶의 기회로 삼아 서로 간의 관계를 잘 배워 사회에 나가서도 크게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했다.

아울러 안보 지킴이 봉사단 회원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자장면을 만들어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장병들을 위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3년 제6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

민족복음화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아기연과 아산시 420여 교회 부흥 위해 기도

(사단법인)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사단법인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병완 목사)는 2023년 제6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지난 6월 5일(월) 오전 7시 충남 아산시 남산로에 소재한 온양성결교회(담임 이재두 목사, 부회장)에서 개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해, 북한의 핵으로부터 효율적인 방어를 위한 한미일 안보태세 강화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강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먼저,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예방중앙교회)는 환영사를 통해 2023년 제6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개최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신 온양성결교회 이재두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와 바쁘신 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와 민족복음화를 위한 기도가 최우선임을 믿고 이른 아침에 참석하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 후, 지금은 모두가 함께 모여서 순수하게 기도할 때이기에 오늘 뜨겁게 기도하기를 당부했다.

이어서 1부 예배는 부회장 이광로 목사(예테교회)의 사회로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로 시작되었다. 본회 부회장 차추병 목사(예원산업개발대표)의 대표기도, 부회장 이광로 목사(예테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부회장 이재두 목사(온양성결교회 담임)의 설교가 이어졌다.

이재두牧사는 왕상 18:1-15 말씀을 본문으로 ‘오바다 성도’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북

이스라엘 19명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하고 우상숭배에 최정점을 찍고 있는 시대에서 국내 대신으로 여호와의 지극히 경외한 자 오바다가 어떻게 여호와의 경외하며 맡은 일에 충실하였는가를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첫째 오바다는 ‘오-바다’ 같은 성도였다. 둘째 오바다는 ‘오-바다’ 같은 성도였다. 셋째 오바다는 ‘오-바다’ 성도였다. 오바다는 북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정치, 경제, 문화 등이 다 썩어가고 있으며, 충신보다는 간신배가 득실대는 현장에서 넓고 깊은 바다와 같은 사랑으로 겸손하게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오바다-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일했듯이, 오늘날 대한민국도 많은 부분이 썩어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오바다 성도가 되어 그 곳에서 여호와의 지극히 경외하는 자들이 될 때, 이 나라가 축복으로 번성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부회장 서석웅 목사(아산성결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의 순서를 마쳤다.

이어서 2부 기도회 순서로 상임회장 이정팔 목사(백민교회)의 사회로 기도회를 가졌다. 1)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정대별 목사(수철리장로교회), 2)나라를 위한 기도/대통령령과 여·야 위원장을 위하여 이진희 목사(주



님의제자교회), 3)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최순식 목사(새협교회), 4)아기연과 아산시 420여 교회 부흥과 6·25 기념구국성회를 위하여 한상문 장로(온양온전감리교회) 순으로 기도를 드리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사무국장 이진희 목사(주님의제자교회)의 광고에 이어사진 촬영이 있을 후, 아산성결교회 서석웅 목사가 준비한 조찬장으로 이동하여 조찬을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지므로 조찬기도회의 일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마쳤다.

이단사이비 대처,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주님만 바라보는 목회

예수이름교회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명 감당할 것’ 다짐

인천지방회 월례회 개최



김진원 목사
인천지방회장

인천지방회(회장 김진원 목사)는 지난 6월 13일(화) 오전 11시 인천시 서구 서달로 149번길 12-12 예수이름교회(담임 김진원 목사)에서 교단 총회장 김병목 목사를 강사로 새로운 회기 첫 번째 지방회 월례회를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민생 안전을 위해, 교단의 발전을 위해, 인천지방

회와 모든 교회의 발전과 성령충만한 사역을 위해 한마음 되어 기도하는 등 회부를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장 김진원 목사의 인도로 교단 총회장 김병목 목사(금산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인천지방회가 그동안 한국교회의 공동의 과제인 이단사이비에 대한 대처를 비롯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 사명을 감당해 오셨에 감사드리다고 전하고 딤후 4:6-8 말씀을 본문으로 ‘관계와 같이’라는 제목의 설

설교



김병목 목사
교단 총회장



정진권 목사
교단총무
인천지방회전임회장

교를 통해 ‘사도바울이 오직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로 살아온 것처럼 우리들도 환경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예배 후 곧바로 이어진 회의는 지방회장 김진원 목사 주재로 회부를 은혜 가운데 처리하고 예수이름교회(담임 김진원 목사)의 정성을 담은 섬김으로 오찬을 함께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인천지방회는 지난 회기동안 한국교회의 공동의 관심사로 떠오른 한국교회에 침투해 오는 이단사이비의 대처를 위해 2021년 6월



진익식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협회장)를 강사로 세미나(목양신문 1175호 3면)를 가졌으며 11월에는 평등법(안)과 차별금지법(안),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 등 기존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온갖 사회 악법들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들은 이에 대해 어떤 자세로 대응해야할지 감지언 약사(영남신학대학교 특임교수)를 강사로 세미나

(목양신문 1186호 3면)를 갖고 한국교회에 침투해오는 이단사이비와 전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지방회 전임회장 정진권 목사는 이단사이비 대처, 차별금지법 반대 등의 세미나를 통해 바로 알고 바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아

울러 정진권 목사와 성도들은 건국대통령 이승만을 알리고 평가하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금란교회 사역훈련원장 이호 목사(국회조찬기도회 강사,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대표)를 강사로 확관순복음교회에서 ‘거룩한 대한민국 그리고 이승만’이란 주제로 특강시간을 연이어 갖고 바른 역사적 평가를 위해 헌신해 오고 있다.





사단
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고문

대표회장

본부장

실무회장

상임회장



진동웅 목사

김병완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박노섭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홍석용 목사

임정대 목사

대표고문

고문

자문위원

대표회장

본부장

상임회장

공동회장

지도위원

부회장

사무국장

상임총무

후원회 회장

후원회

진동웅 목사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연홍희 목사, 이두영 목사, 임기석 목사, 신상우 목사

이명수(국회의원), 홍문표(국회의원), 김태홍(충남도지사), 강훈식(국회의원), 박경귀(아산시장), 김종오(아산경찰서장), 강희복(전 아산시장), 박성기(U1대 교수), 박하식(전 삼성고 교장)

김병완 목사

김수홍 목사

실무회장

조이철 목사

사무국장

이진희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용 목사, 임정대 목사

진동웅 목사, 노선웅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용석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손 혁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용 목사, 임정대 목사

박치영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규 목사, 최재희 목사, 박산석 목사, 염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백현기 목사, 김준호 목사, 김성구 목사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장한원 목사, 정병한 목사, 윤돈상 목사, 이덕희 목사, 김성권 목사, 곽일귀 목사, 조계성 목사, 김의중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김청환 목사, 염태일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현준 목사, 박득수 목사, 구자범 목사, 안덕근 목사, 안홍규 목사, 고영기 목사, 박성화 목사, 장중우 목사, 정진학 목사

이진희 목사

서기

이은혜 목사

회계

임은혜 목사

회원

아산시 400교회

박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춘호 목사, 임해성 목사, 김준권 목사, 정미숙 목사, 권필희 목사, 안상욱 목사, 안준호 목사, 홍은식 목사, 김희석 목사, 오세완 목사

박희중 장로

후원회 총무

박해서 장로

배상한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재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윤 장로, 박노완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택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세기총, 신임 대표회장 기자회견 가져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세기총 회관 및 미국 법인 설립 하겠다”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11대 대표회장으로 정로로는 처음으로 전기현 장로(미국 샬럿장로교회)가 취임했다. 전기현 장로는 지난 6월 8일(목) 서울 강남구 엘미나호텔에서 가진 교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기총이 10년을 지나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시점에서 말 그대로 전 세계에 흩어진 750만명 디아스포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세기총회관 건립과 미국 법인설립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 장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리라 믿는다. 종으로서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임할 것”이라며, “세기총이 10년을 지나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다. 임기 내 세기총 회관 건립을 위해 3백만 달러를 모금하고,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사역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세기총 글로벌 사역 감당을 위해 임기 내 미국 법인으로 등록하고, 정관을 영문으로 번역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미국 주류 사회에 세기총을 알리고, 이들과 함께 사역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 세계에 흩어진 750만 디아스포라와 함께 국내외에 복음을 전파하는 막중한 사명을 갖고, 세계 각처에서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글로벌 기도를 지속할 것”이라며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세계 교회를 변화시키며, 다문화가정과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교회연합을

이루는 일도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전 장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과 북한 동포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통해 희망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외에도 국내 다문화가정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주님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난에 동참하고, 인류 구원을 위한 지상명령 수행을 위해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한 소통의 매신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전기현 장로는 Chun Group, Inc.의 설립자이며 CEO이다. 1983년부터 공인회계사(CPA)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시아헤럴드를 창간(영어·중국어·한국어·베트남어)하고, 아시아헤럴드 도서관(13만 2천 권의 장서 수장)을 설립해 미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또 다수 학교에서 법학 교수를 지냈고, Chun University를 설립해 초대 총장을 역임했다. 그가 섬기는 샬럿장로교회는 샬럿 지역 최초 아시아인 교회이다. 전기현 장로는 그 외 사회 각 기관에서 직임을 맡아 섬기면서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한편, 세기총은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초청민찬을 갖고, 전 세계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민찬에는 김요셉 목사, 정서영 목사, 신화석 목사 등 역대 대표회장들과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다음세대 부흥으로 다음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2023년 부흥사회 연수 및 세미나에 참석하고...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3년 부흥사회 연수 및 세미나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60:1) 라는 주제로 6월 21일(월)-6월 24일(수)까지 은혜와진리수영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교단의 정체성인 종교다원주의배격, 동성애반대 차별금지법반대 자유민주주의수호를 위해 우리들도 힘을 합하여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사 43:1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023년 부흥사회 연수 및 세미나에 참여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다음세대 부흥과 다음세대를 살려야 한국교회도 살고 나라도 산다는 다 시대 길이 깨닫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대양 육대주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역을 할 수 있게 말씀과 은혜를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과 니고데모의 무지 어둠에서 벗어나 영을 깨우며 부흥사는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며 기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름이 환도뼈가 부러지면 부르짖을 때 발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같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열정, 성령충만 기도와 전도, 사랑과 인내, 온유, 주의 종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과 인품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를 통하여 복음이 들어오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에녹이 300년 동안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 같이 여러 강사 목사님들의 말씀 속에서 충만한 은혜와 성령충만함을 체험했습니다.

행 20: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노라”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때에 추수할 일꾼을 찾으니 데누가 가서 거둘까?

부흥사회를 통하여 담대하게 날 보내소서! 날 보내소서!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일깨우는 귀한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제이래 교회 사역과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빛을 발해야 할 때입니다. 다가오는 9월에 있을 태국 선교 부흥회를 기대하며 기다려집니다.

부흥사회 연수 및 세미나 일정을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정책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소망농악교회 옥보애 목사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3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회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령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 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령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⑤ 신임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회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3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질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로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회저 (우) 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 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과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과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 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 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발표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3개월 내 발급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예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우 필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의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로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1) **폐놀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쥐실험)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세포로 세계특허받음)
2) **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 **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 **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 **사포닌** : 면역력 증가
6) **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 **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 **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 **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0) **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있음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 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Midwest Concert’ 뉴욕 링컨센터

캐나다, 중국 학교와 자매결연, 콘서트·콩쿠르 통해 인재 발굴

Midwest University(총장 제임스 송 박사)는 지난 5월 31일 오후 7시 뉴욕 링컨센터에서 'The Sound of Spring-Midwest Concert'를 열고 조여름의 열기를 아름다운 화음의 선율로 달렸다.

이날 열린 'Midwest Concert'에는 유엔사무총장, 조지 부시 전 미국대통령, 리시수네 영국총리, 스페인 총리 등이 축하 메시지를, 주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가 축하를 했다.

콘서트에는 소프라노 Dr. Julia Kho(고미현 교수)가 특별출연을 했으며, 중국의 유명 소프라노 Yan Lu, 베이스 Lei Zhang, 테너 Xiaodong Bai, 바리톤 Kunpeng Li 등 16명의 성악가들이 출연해 절정의 기량을 펼쳤다.

콘서트에는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부의장, 뉴욕 주의회 의원들, 뉴욕시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특별히 중국 최고의 대학교로 알려진 북경대학교 예술대학 학장과 캐나다 Toronto School of Music Canada 총장 부부, Northwest National University 중국 국립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등도 참석하여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Music & Arts와 자매결연을 맺기도 했다.

이날 뉴욕 주정부 의회와 New York City 의회에서 제임스 송 총장에게 어워드를 수여하기도 했고, Midwest University에서는 주 뉴욕 중국 총영사에게 'Global Leadership Award'를 수여했다.

Midwest University와 자매결연을 맺은 캐나다 Toronto School과 중국 북경대학교 예술대학은 앞으로 최고의 음악가들이 출연하는 국제 콘서트와 국제 콩쿠르를 통해 인재를 발굴하고 세계무대에 진출시키는데 의견을 모으고 2023년 가을부터 중국 대도시에서 콘서트를, 이어 캐나다·미국·한국 등지에서 Midwest International Concert를 개최하는 한편, 2024년부터는 음악영재 발굴을 위해 국제 콩쿠르도 개최하며, Midwest University 자매기관인 MIRI 연구재단법인에서는 음악영재, 수학영재, 미술영재를 발굴



하고 양성하는 MIRI Academy도 개설하게 된다.

Midwest 음악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한국인 중 윤학원 박사(전 중앙음악학장), 구두희 박사(전 숙대음대학장), 황병덕 박사(전 연세대 음대학장) 박재훈 박사(작곡가)와 그 외 수십 명이 한국 각 음악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Midwest University는 Wentzville, Missouri 주에서 1986년 설립하여(설립자, 제임스 송 총장) 미국의 높은 교육장벽에 도전하여 아시아 이민자가 설립한 최초의 미연방정부로 부터 인준받은 종합대학교로서 항공대학, IT 대학, 음악대학, 경영대학, 교육대학, 신학대학, 심리상담대학원, 리더십 대학원, 등 있고 BS, BA, MA, MM, MBA, MDiv, DMA, DMin, DL, Ph.D 학위과정이 있다.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SEVIS I-20를 발행하며 세계 어느곳이든지 직장을 떠나지 않고 On-Line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문의 02-3672-4516)

고통받는 이웃에게 “생명의 희망”

전국 11개 교회, 성도 478명 장기기증 희망등록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 목사/이하 본부)는 지난 5월 한 달간 전국 11개 교회가 생명나눔에베를 통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생명의 희망을 전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7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부평중앙교회(담임목사 김영도)는 설립 76주년을 기념하며 생명나눔에베를 드렸다. ‘은혜의 시작연산’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한 김영도 목사는 “세상은 나누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욱 따뜻해진다.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사역에 함께하기를 바란다.”라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공화성신교회(담임목사 권종민)도 지난 5월 21일,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 생명나눔에베를 드렸다. 1부에서 4부까지 진행된 생명나눔에베에서 권종민 목사는 성도



들에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아픈 이웃들을 살리는 일에 많은 성도가 참여하기를 바란다.”라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생명나눔 실천을 독려했다. 이날 성도 124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하여, 이 제까지 55명의 성도가 생명나눔 사역을 통해 십자

가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했다.

이 밖에도 탐라교회(민경민 목사), 꿈이있는교회(김용희 목사), 큰은혜교회(김한주 목사), 한빛순복음교회(박병식 목사), 충성교회(성일현 목사), 웅상중앙교회(손형철 목사), 봉하현교회(호병기 목사), 새소망교회(김일수 목사), 선화교회(박진욱 목사)가 생명나눔에베를 드리며, 지난 5월 전국 11개 교회의 478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하며 아들의 시간을 걷고 있는 이웃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했다.

본부 이사장 박진택 목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의 실천으로 생명나눔을 약속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한국교회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눔운동에 함께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이웃에게 희망과 사랑을 남김 없이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흥교동협, 고독사제로프로젝트 가동

고독사 예방 및 안전하고 행복한 마포 수립

대흥동교동협의회(회장 정현일 목사, 신생명나무교회), 대흥동주민센터(동장 김명식)와 진행한 ‘고독사제로프로젝트 원데이 카페’ 행사 수익금과 (사)엘드뷰티웍스, K-뷰티소사이어티연구소(소장 최애스더 신한대 교수)가 진행하는 고독사제로프로젝트 엘드뷰티인대학 인문학 강연회 시 창작교실에서 책방존과 독거어르신들의 지필 엘드뷰티전시모임집 ‘그림처럼 우리를 스쳐간 세월’ 발간 기념집을 지난 6월 5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에게 전달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을 막기 위해 대흥동교동협의회와 같이

민관이 함께 협력해 외롭고 소외된 어르신들이 없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마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현일 회장은 “대흥동은 인구가 64.5%로 고독사(死) 위험이 심각하기에 복지사각지대를 사전 발굴하고 고립을 차단하는데 모든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고독생(生)에 관심갖고 공교회성 회복에 힘쓰며, 독거어르신들의 시스기와 같은 자기 내면을 표현하는 표현 등을 통해 우울증 예방과 자존감이 회복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대흥동교동협의회는 고독사제로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예배에서 정현일 목사의 사회, 이재전 목사(신촌에베당)의 설교, 이경수 목사(이음교회)의 대표기도, 마지원 목사(새문교회)의 합심기도, 이영섭 목사(대흥교회)의 축도로 마치고 회의를 가졌다.

이날 기도회에는 남해서 의원(마포구의회 운영위원장), 오옥자 의원(마포구의회), 장정희 의원(마포구의회), 김명식 대흥동장, 김준희 목사(신촌에베당), 배상도 목사(신촌은혜로운교회)가 전달식에는 김연태 목사(우리교회), 마지원 목사, 오해경 대흥동주민자치위원장, 최윤희 간사, 이연우 홍보단장, 김화영 행정팀장이 참석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전도자로 발굴되는 가족세트 전도

진리의 고요함이
태고의 적막함이여
파편의 시간들속에
서로 부딪쳐 깨어 질파에
아, 모진 함성이여
비로소 어린 숨결 되어
나오를 진리의 품에 안겨왔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 할까— 시편 116편 12절

오, 주여! 내 안에 사색별 되어
이어두움을 비추소서!
순례자의 길 어둡어 넘어질 때
당신의 고상한 손길 주시어
나로 연약함을 면케 하소서.

오, 주여!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이르시니
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전도집회의 연속이었다
월요일에는 원주,
화요일에는 대전집회,
수요일에는 의성, 구세군, 노메실, 영문,
목·금요일에는 천안 집회,
토요일에는 안성,
모든 일정을 은혜가운데 마쳤다.

의성에서는 노인집마다
영점기도를 통해
그들이 구원 받는
기적의 역사로 출렁였다.

천안 위대한 약속교회,
두 분의 기도와
끊임없는 예배의 열정으로
연속 가족세트전도를 통해
박영수 목사는 목이 터져라
열강을 하며
때로는 학자의 허같이,
때로는 성령의 불령망이 가되어
아낌없이 외쳐대는 그의 전도 열정은
참으로 놀랍도다.

결실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척도를
측량할 수 있음이 감사 할 따름이다.

성령의 교회,
사랑의 교회,
위대한 약속교회,
마음껏 영광 받으소서!

가족세트전도본부장 영성시인 이수 교수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대표총재
문화선교TV방송대표 박영수 목사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어르신들을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문적인 총론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위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니,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 사랑의집 시설장

(박흥열 목사 수상경력)

- 2007. 10. 3 이천시의회원 표창
-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읍면 금율로 828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믿음으로 새날 같은 곳으로

이역주 목사 // 한국교회연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성교회

믿는 사람들도 왜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나요?



위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까? 너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가?”라고 조롱 섞인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왜 의인도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욥의 삶을 예로 들어서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그 나중이 더 복됨을 알게 해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를 믿는 이들도 세상에서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고난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받아야 하는 불행한 일 중에도 피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 그리고 언제나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어려움을 만나거든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일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을 보면서 “혹시!” 라는 의혹의 눈길은 옳지 않습니다.

같은 어려움과 고난도 믿음 있는 이들과 믿음 없는 이들에게 오는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같은 풀무불이라도 나무와 지푸라기는 타서 없어지지만 쇠는 더욱 단단한 쇠불이가 되게 합니다. 동일한 폭풍우라도 참새나 까마귀는 바람에 날아가 떨어지지만 독수리는 더 높이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오히려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시 119:71)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그들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것을 압니다. 또한 세상이 치유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불행한 일을 만나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기에 신앙을 굳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아름다운 시

삶이 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그 삶 자체가 시입니다.

세상 사람의 편견 개의치 않고

온 맘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 모습은

그 삶이 시이며 노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원손이 한 것 오른손이 모르게 섬기는 모습은

한 편의 아름다운 감동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만난 작은

삶의 모든 이야기들은 시가 되어

준비된 영혼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 몸과 내 물질이 기쁨으로 드려질 때

삶은 시가 되고 노래다운 노래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은

영혼구원이며 그것을 위해 드려지는 모든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가 됩니다.

시는 말로써 이뤄짐이 아니요.

삶이 시가 되어 온 몸으로 시를 쓰는 사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교회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집사님, 장로님들을 보면서 마음이 감동되어 쓰다.

사설

누구보다 정의롭고 공의롭기를

한국사회는 바보가 되지 않으면 환멸, 자기혐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뜻있는 사람들은 개탄을 하고 있다. 이상한 사회가 왜 버렸다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상이 돼 버렸고, 궤변이 나 옴모나 거짓말들이 활개 치는 나라가 왜 버렸다는 뜻이다.

선관위가 하는 일들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 그지 않다. 만장일치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국민들의 마음은,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이며 왜 나라가 이 지경이 돼 버렸나하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다.

헌법과 법률에 무식하고 무지한 자들이 포진하고 있으면서 아베 찬스를 만들어 내고 온갖 의혹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데도 딱 나라에 사는 사람들인 양, 아니 그들은 마치 치외법권지대에 살고 있는 양 우리는 독립기구나이므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일방한 논리를 공책하게 내밀고 버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누구의 간섭도 감사도 받지 않으면서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기관이 존재하는가? 과거 청와대도 감사를 받았고 대통령실도 감사를 받았거늘 그들은 구름위에 떠 있는 기관이라는 말일까?

지금의 선관위는 세습비리, 성범죄, 절도 등 하루가 다르게 추한 본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누구의 간섭도 감사도 거부한다며 비열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기면 되는 것일까?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 전원 사퇴를 부르짖고 있다. 국민들의 소리도 다르지 않다. 그 밖에 그 나물인데 선관위 누군가를 깨끗하다 소리치겠는가? 선관위원들은 대통령도 감옥에 쳐 넣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잊었을까? 그들은 대통령보다도 높은 자들일까?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도 감옥에 가는데 임명된 자들이 도대체 무얼 믿고 누구를 뺏신으로 하고 큰소리를 쳐대는지...도대체 나라가 왜 이지경이 돼 버렸는지...대한민국에 치외법권은 없다.

선관위원들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사명감 있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맘대로 놀았다. 지난 대선 때 ‘소쿠리 투표’ 때 선관위를 그냥 둔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그

때 단죄를 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권력의 비호 속에서 그들은 무시했다. 인허무인 행동을 해도 누구도 벌을 주지 않았다. 그 뒤에 권력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벌을 가만 두었다가 키운 것이다. 고름이 살이 되지 않는다. 고름은 도려내야만 살 수 있는 것이다. 수술하는 이유가 그렇다. 고름 같은 사람들은 도려내야만 한다.

선관위는 유통기한이 다 됐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절대권력을 누린 선관위가 타락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지난 대선 때 얼마나 편파적인 일들을 했는지를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권력의 비호 속에서 온갖 더러운 일들을 저질렀다.

‘결정적 자기모순’이라는 게 있다. 자칭 민주와 세력이 북한 인권 문제를 은폐하는 것 등이 그런 예이다. 지금의 선관위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 국민들은 선관위를 불신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선거를 감시한다고?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다. 저런 영터리 선관위를 법에 따라 심판하고 개혁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들은 명청이가 되고 국민들은 노예가 되고 그런 정권을 이런 망해야만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방관한다면 이 나라는 희망제로다. 두고 볼 일이 따로 있지 이런 일들은 두고 볼 일이 아니다. 갑작 일도 아니다. 야야 얹어 단죄를 노래해야만 한다. 침묵은 동무다. 감사를 거부한다고? 어느 나라 기관인가? 감사원의 감찰예외기관(국회, 법원, 헌재, 감사원법24조3항)도 아니면서 감사를 거부한다고? 무식하기는 과거 5년은 통했는지 몰라도 이제는 안 된다.

바르게 가야 한다. 국민들도 침묵하면 안 될 일이다. 성경은 그것을 ‘양심의 화인’으로 표현한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딤후 4:2) 양심이 모두 불에 타 없어져 불의와 죄에 무감각해지고 거짓말을 일삼는다는 것이다.

“하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러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러다”(눅 6:25) 기장이나 선장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승객들은 조난자가 될 수밖에 없다. 과제가 산적한 대한민국호가 자기 배를 우선하는 사람들로 인해 표류하면 죄 없는 국민들만 피해자가 된다. 먼저 양심을 되찾기를 누구보다 정의롭고 공의롭기를 제대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기를 기도해야 할 때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2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72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23년 7월 6일(목) 오후 1시(11시 30분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점심식사 등 준비관게로 참석여부를 6월 29일(목)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

또는 팩스(02-2677-518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0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김 병 묵
총 무 목사 정 진 균